2019년도

2019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5차 회의

일 시 : 2019. 11. 15.(금) 13:00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비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비공개
3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비공개
4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비공개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결과 검토	비공개
2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비공개
3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비공개
4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비공개
5	‘결련택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협의	공개
【보고사항】		
1	종묘제례악 원상복원 민원 관련 조치계획 보고	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전’ 결과 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4.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 토 사 항

5.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조사결과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6.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7.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8.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9. ‘결련택견’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협의

가. 제안사항

‘결련택견’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종목의 사전협의 요청(‘19.09.02.)에 따라, 해당 종목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가 ‘결련택견’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협의 요청을 해온 바,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종목 사전 심의 가결(종목 명칭 ‘택견’)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의거, 택견을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는 종목으로 지정(‘17.06.22.)
- ‘택견’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서울시→문화재청 / ‘17.10.13.)
- 서울시 요청에 대한 회신(‘18.07.25.)
 - 국가무형문화재와 서울시 무형문화재 간 차별성 유지 및 전승 계보를 둘러싼 논란이 우려되므로, 신청이 들어온 택견 분야에 한하여 심층적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종목의 차별성 및 특수성을 규명한 후 종목 지정을 위한 재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함.
- ‘결련택견’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재요청(서울시 →문화재청 / ‘19.09.02.)

2) 전문가 검토의견(요약 / 서울시 제출)

조사자	검토의견
A	<p>총점: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서울지역에서 택견의 전통을 담보하고 있고, 이를 전승해 왔던 분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종목 명칭은 ‘결련택견’으로 함. ○ 결련택견의 경우, 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승가치에 대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힌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보유종목의 지정을 추진할 경우, 선 지정 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결련택견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온데다가, 기존 학계의 연구를 통해 서울 지역의 택견 존재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판단함. ○ 보유단체나 개인이 아닌 보유종목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유단체 지정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보유단체 인정이 택견 단체 사이에 또 다른 정통성 시비를 비롯한 불필요한 논쟁이 있어날 가능성이 있음.
B	<p>총점: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택견) 제2차 조사보고서(임동권)에서 실제 택견의 발견지 및 전승자의 연고인 서울 사대문을 중심으로 택견이 시행되었음을 언급함. ○ 현재 서울 지역 이외에는 구체적 기록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택견 관련 기록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결련택견’의 기초자료 조사 및 목록화 작업과 아울러 수련장소 및 수련체계 등 심층적인 현지조사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 서울지역의 무형문화재의 지정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결련택견’은 택견 초대 보유자 송덕기의 증언 및 택견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조선시대 마을간 경쟁 및 마을 내부의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통성을 가지고 있음. ○ ‘결련택견’이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에 지역성도 갖추었음. 특히 서울지역을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결련택견’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점도 사실임. ‘결련택견’을 재현하는 일은 전통의 무형문화의 이해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 향후 ‘결련택견’ 자체가 서울의 무형문화유산이자 동시에 문화행사 및 관광자원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 종목 명칭을 ‘결련택견’으로 지정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택견’과 차별화할 수 있음. ○ 보유자, 보유단체 공모 시 특정 개별단체를 포함한 서울지역에서 택견을 수련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조사자	검토의견
C	<p>총점 : ○○점</p> <p>○ 전통사회에서 행하여졌던 택견이 일제강점기에 거의 단절되었는데 송덕기에 의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었고, 이를 발전 계승한 것이 지금의 택견임. 다만 이것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후 전승 계보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서로의 정통성과 독창성, 지역성 문제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덕기를 중심으로 했던 택견의 원류는 서울 중심이었음이 여러 증언 및 자료 조사에서 밝혀지는 바임.</p> <p>○ 택견을 서울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택견인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 제시와 함께 택견 관련 대소 단체의 합리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p>

3) 참고사항 : ‘택견’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지정명칭	지정구분	지정일	보유단체(인정일)	전승자(성별, 생년, 인정일)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단체	‘83.06.01.	택견보존회 (‘03.07.17.)	○ 정경화(보유자, 남, ‘54년생, ‘95.06.01.) ○ 박효순(조교, 남, ‘68년생, ‘08.02.28.)

라. 검토의견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종목과의 명칭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결련택견’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사항 : ‘결련택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붙임 : 서울시 지정대상종목(결련택견) 조사내용 1부(별첨7)

보고 사항

10. 종묘제례악 원상복원 민원 관련 조치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종묘제례악 원상복원 민원 관련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종묘제례악의 일제강점기 왜곡 논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민원 개요

- 민원인 : ○○○
- 민원제기 : 대통령 비서실장('19.10.04.), 문화비서관·문화재청장('19.10.11.)
- 민원요지
 - 종묘제례악 원상보존 조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 변조 및 왜곡된 종묘제례악 원상 복원
 - 종묘제례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 시 왜곡내용 수정

2) 주요 경과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19.04.08.)
 -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 복구해 후손에게 물려주자!”(368명 참여)
- 문화재정책국장 면담 (국립국악원 참석 / '19.04.17.)
 - (민원인 입장) 종묘제례악 일제강점기 왜곡·변조 제기, 복원을 위한 조사단 제안
 - (국립국악원 입장) 기 종결된 사항 있음. 문헌 해석에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 연구가 진행되면 열린 자세로 논의 참여하고 적극 협조하겠음.

- (문화재청 입장) 제기 사항 무형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필요 시 조속히 진행하겠음. 관련 기관·단체·학회 등의 의견 수렴 및 조정 필요
-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19.10.17.)
 - (회신내용) '03~'05년 학술대회, 고증 시연, 복원 연주를 통해 수정·보완 조치함. 민원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할 예정임.
- 종묘제례악 원상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19.10.28.)
 - 주최/주관 : 최경환 의원 / 종묘제례악원상보존시민연대
 - 내용
 - 일제강점기 종묘제례악의 왜곡된 현황 소개
 - 현행 종묘제례악 일무와 시용무보 일무 해석의 차이
 - 종묘제례악 원상복원을 위한 방안 제시 등

3) 민원 및 학술세미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종묘제례악의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들어 일제에 의해 왜곡된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이 있었으나, 국악원 등의 주도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당시 영상 기록을 보면 여전히 왜곡된 상태로 연행되었음. ○ 이왕직 아악부의 책임자와 전임 임원(○○○, ○○○, ○○○ 등)은 시용무보의 구성과 의미를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일제가 시용무보를 왜곡했으며, 이 분들이 나이가 어렸으며 당시 일제 하의 가혹한 상황아래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추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설명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내용 중 일제에 의해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왜곡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함.
시용무보와 현행 일무와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종묘제례 일무는 시용무보의 체계적 연구에 기초하지 않은 형태로 과거 구술전승에만 의존함에 따라, 시용무보의 술어 구성체계인 삼재(天地人)적 구조와 음양 조직과는 다르게 개작된 것임. ○ 시용무보에는 악과 무가 함께 병기되어 있음. 악과 무는 보태평과 정대업으로 나뉘어 있고, 무의 구조는 모두 음양·중용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악의 절구법과는 사뭇 판이함. ○ 보태평지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의 이음사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원리의 부재임. 동작이 음악

	<p>길이를 맞추지 못해 끝동작과 일치시킬 수 없음. 음악과 64명의 동작을 불일치시켜 결과적으로 일무의 전체적 흐름을 막고 일무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들.</p> <p>-현행 일무는 시용무보의 술어와 다르게 임의로 술어를 가감하여 개작한 것으로, 세종대왕이 제정한 종묘일무의 원리나 술어의 특징들을 알아볼 수 없음. 그에 따라 춤사위도 함께 변질되어 현행 종묘일무에 철학적 해석이나 전통적 가치의 설명이 불가능함.</p> <p>○정대업지무 관련</p> <p>-시용무보에는 역대 조정의 문덕을 기리는 보태평과 무공을 기리는 정대업이 있는데, 현행 정대업에는 그 자세가 없음. 정대업 일무는 춤추면서 공격과 방어의 자세가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나타나야 하는데, 현행 정대업 일무는 일렬로 줄을 서서 추니 공격과 방어용 자세가 나타나지 않아 음악의 장단 길이와 춤이 일치되지 않음.</p> <p>-정대업지무는 검무임에도 검술적 기법이 없음. 특히 검술은 날의 사용이 중요한 기법이나 현행 정대업지무는 검 날의 방향을 무시한 채 움직임(점술, 거견외휘, 양수하견 등).</p> <p>-시용무보의 술어들은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동작을 표시하여 검의 사용법에 대한 예비지식이 있으면 술어만 가지고도 쉽게 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일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 시용무보를 폄훼하고 있음.</p> <p>-현행 정대업지무는 시용무보에 없는 술어들을 삽입하고 기록된 술어들을 제외시키는 등 술어의 내용과 차례가 다름.</p> <p>○시용무보와 현행 일무의 복색에 차이가 있음(시용무보-남색옷, 현행-적색옷).</p> <p>○시용무보와 현행 일무의 순서에 차이가 있음(보태평지무, 정대업지무)</p>
<p>종묘제례악 원상복원 방안</p>	<p>○국회 차원의 종묘제례악 원형복원 특별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50명 이내)</p> <p>○<종묘제례악 원형복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p>

<참고> 2002~2006년 종묘제례악 원형 논란 관련 진행 경과

- 종묘제례악의 무용(일무)이 『시용무보(時用舞譜)』*와 달리 전승되고, 음악과 무용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되었다는 주장 제기('02~'03)
 - 제기자 : ○○○, ○○○, ○○○ 등
 - 시용무보(연대 미상) : 조선시대에 편찬된 종묘제례 일무(佾舞)의 무보. 김용 보유자는 논문(1998년)에서 찬간연대를 세조조로 보았음.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국립국악원에 검증 의뢰('03.5월)

- 종묘제례악 논란 관련 학술대회 개최('03.6월~'05.8월/3회)
 - 종묘제례보존회('03.6.19./세종문화회관), 문화재청·국립국악원('03.12.18.~12.19./국립국악원), (사)한국국악학회('05.8.26.~8.27./안성연수원)
 - ○○○ 교수, ○○○ 강사 등도 학술대회 참가, 발표
- 종묘제례악 고증시연 및 복원 연주(국립국악원, '05.8월/'06.4월)
 - 일제강점기 개사 추정 악장 가사 삭제 및 18세기 자료(대악후보)를 기반으로 음악 및 복식 고증, 복원 / 대악후보(大樂後譜): 1759년에 세조대의 음악을 모아 편집한 악보집
 - 종묘제례악 복식고증시연회('05.8.25./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관련 워크숍 및 복원 연주 ('06.4.19.~4.20./국립국악원)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결과 보고('07.10월)
 - 국립국악원의 고증 시연회와 연주회를 통한 수정·보완 이후, 문제제기가 없는 사항
이므로 사실상 종결됨
- 고증을 통해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종묘제례악 연행(종묘제례악보존회, '07~현재)

라. 조치계획

- 종묘제례악 일제강점기 왜곡 논란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일정 : 2019.12월 중
 - 참석대상 : 문화재청,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보존회 등
 - 내용 : 제기된 민원에 해당 기관 의견 수렴 및 조사위원회 수립 필요성 검토 등

붙임 : 종묘제례악 원상복원 관련 민원서류 1부(별첨8)

11.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전’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 접수 건(총 56건)에 대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포함 여부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 실시('19.04.01.~05.07.)
 - 추진배경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분야가 확대되면서 신규 분야(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된 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공모대상 : 전국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사례 : 아리랑, 김치 담그기)
 - 접수결과 : ‘민속널뛰기’등 총 56건 접수

2) ‘국민공모전’접수종목에 대한 예비목록 포함 여부 검토회의

- 회의 일시 : 2019.08.29.(목) / 14:30~16:00
- 참석자 : ○○○(동아대), ○○○(전남대), ○○○(한양대),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회의 내용 : ‘국민공모전’접수종목(총 56건)에 대한 예비목록 포함 여부 검토
- 회의 결과 : 4건에 대해 예비목록 포함 추천
 - 대상종목 : 민속널뛰기, 막걸리 빚기(막걸리와 막걸리 빚기), 전통서당교육, 민속그네뛰기

3) 참고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 추진배경 : 지정조사 대상 선별을 위한 목록 풀(pool)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7년)
 - 연구기관 : (사)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 선정 기초자료 :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100대 민족문화 상징, 한국무형유산 대표목록(2011~2012)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98종목) 제안

전통 공연·예술(11종목), 공예·미술에 관한 전통기술(18종목),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16종목),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9종목),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10종목), 구전전통 및 표현(8종목), 전통지식(26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마련 계획 보고('18.11월)

구 분	종 목
전통 공연·예술	전통재담, 만석중놀이 등 11종목
공예, 미술에 관한 전통 기술	먹장, 아교장 등 18종목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출생과 육아의례, 상장례 등 16종목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농기(마을기)문화, 계조직(기로회)문화 등 9종목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마상무예, 국궁, 소싸움 등 10종목
구전 전통 및 표현	소모는 소리, 독서성 등 8종목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인삼 재배와 문화, 갯벌 어로 등 26종목

4) 향후계획

- '국민공모전'추천 종목 4건 예비목록 포함